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김천 철도건설, 국토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

도, 조속 추진... 용역 예산 5억 확보 계획 등 총력 대응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확보와 조속한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됐지만,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4차 계획에서 추가검토로 반영된 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대

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 역시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서 전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을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타당성 확보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3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물론 2021년 4차 계획(안)에서도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된 전주~김천 철도건설이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

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타 신규사업과 동등한 사업효과를 가진다.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단순히 전주~김천을 잇는 연결노선이 아니라, 새만금부터 김천, 대구, 부산·울산·경남(약 400km)을 아우르는 동서횡단의 오자교 역할을 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 철도선과 같은 여객수송만이 아닌 영호남간 물류·경제·산업·관광을 활성화할 통한 미래지향적인 신(新)경제벨트로서 동서 간 상생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 기간철도망이다.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5억원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앞서, 제1차부터 제3차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 중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사업가능성이 열린만큼, 15년 넘게 표류해온 전주~김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와 더불어, 조속히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호상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익산)	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21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핵심사업 반영해달라”

최훈 행정부지사, 기재부에 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지원 건의...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등도 요청

전북도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식품·중자·ICT 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의 5대 농생명 클러스터 중 식품산업 주도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관련 핵심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5일 김안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전 국민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식품 제조·전시·체험·교육·쇼핑·관광 등 복합적인 시설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푸드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농식품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 부지사는 푸드파크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17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설이 없어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동물용 의약품의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7억원 반영도 건의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남동오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관련 사업 반영도 요청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의 가치와 정신을 보급하는 호남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5일 기획재정부 김원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만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다.

지역의 거점 유교 수련원 구축을 위해 무성서원 유교 수련 건립 기본계획 설계비로 내년도 국비 1억원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은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 등이 학문활동 및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역내 보유하고 있는 역사 고층 1차 사료인 교문서 등을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위해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시설비로 내년도 국비 48

억 원 반영도 요청했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기재부 문턱이 닦도록 릴레이 방문 활동을 추진한 계획이며, 경쟁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

문해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도를 방문해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 할 계획이며, 16일에는 14개 지역 시장·군수를 포함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 및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활동 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올 상반기 수출유망중기 로즈피아 등 21곳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로즈피아 등 21개사를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2021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총 78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109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에는 향후 2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지원사업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욱 청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5월까지 누적 전년 동기 대비 14.6%가 증가된 5.5억불의 수출실적을 올렸다"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GIMJE CITY

경제도약, 정임로운 김제

지속 발전 가능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